



6월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키노트를 발표하고 있는 조주완 LG전자 대표. 사진제공 | LG전자

LG전자, SM과 홈피트니스 합작법인 설립

9월 앱 출시...스마트밴드 등 연동 서비스 제공

LG전자가 6월30일 SM엔터테인먼트와 홈피트니스 합작법인 '피트니스캔디'를 출범했다. 지분은 LG전자와 SM이 각각 51%, 49% 보유한다. 피트니스캔디는 홈피트니스 관련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구독 서비스 기반 앱을 운영한다.

이르면 9월 출시할 앱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다양한 OS(운영체제)에 탑재할 예정이며 스마트밴드, 카메라, 운동기기 등과 데이터가 연동되는 양방향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SM과 함께 홈피트니스만이 아닌 고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한다. 피트니스캔디는 앱과 연동해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는 피트니스캔디의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운영을 지원한다. 또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에 맞춘 각종 디바이스 제작도 돕는다. 김명근 기자

KT&G '홍대 음악지원사업 뮤지션 모집'

2개 부문으로 모집...상금·앨범제작·콘서트 등 지원



KT&G(사장 백복인)가 신인 뮤지션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는 '2022 KT&G 상암마당 홍대 음악지원사업' 참가 대상자를 7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는 '밴드 디스커버리'와 '나의 첫 번째 콘서트' 2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밴드 디스커버리'는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자작곡을 3곡 이상 보유한 아마추어 뮤지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온라인 경연을 거쳐 최종 선정된 2팀에게는 상금을 포함해 싱글앨범 제작비 등 500만 원 상당의 혜택과 상암마당 홍대에서의 주말공연 기회가 제공된다.

'나의 첫 번째 콘서트'는 팀 결성 후 100석 이상 규모의 첫 단독공연을 희망하는 뮤지션 중 라이브 실력과 장르 다양성 등이 검증된 4팀에게 생애 첫 콘서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오늘부터 '위메프데이'...1시간마다 특가 상품 공개

위메프가 3일까지 '위메프데이'(사진)를 열고 1시간마다 새로운 특가 상품을 공개한다. 메인 행사인 '슈퍼위메프데이'에선 매일 4개 상품을 초특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매일 '타임달'도 진행한다. 1시간마다 4개씩, 행사 기간 총 144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모든 이용자에게는 최대 20% 장바구니 할인 쿠폰과 15% 카드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휴카드 결제 시 최대 5%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T알파쇼핑, 제9기 시청자평가원 모집

KT알파쇼핑이 1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9기 시청자평가원을 모집한다. 만 40세 이상의 여성 고객에 대상이다. 매주 상품선정위원회에 선정된 방송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특장점 및 구성 만족도, 가격대 수용도 등 전반적인 상품 매력도를 평가한다. 또 KT알파쇼핑 관련 다목적 설문조사 참여, 시청자 평가방송 패널 참여, 월간 정례회의 아젠다 설정 등을 통해 보다 생생한 고객 목소리를 전한다. 선발자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하며 월별 활동 적립금, 임직원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한 발 앞선 '기술' 시작

“세계 첫 3나노 파운드리 양산...TSMC 잡는다”

세계 최초 GAA기술 적용 초도 양산
기준과 비교해 성능↑전력소비↓
3나노 공정으로 글로벌 경쟁력UP
고객요구 최적화·안정적 수율 관건
“차별화된 기술 적극 개발 나설 것”

삼성전자가 3나노(nm, 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의 양산을 시작했다. 회로 선폴을 3나노미터로 줄인 것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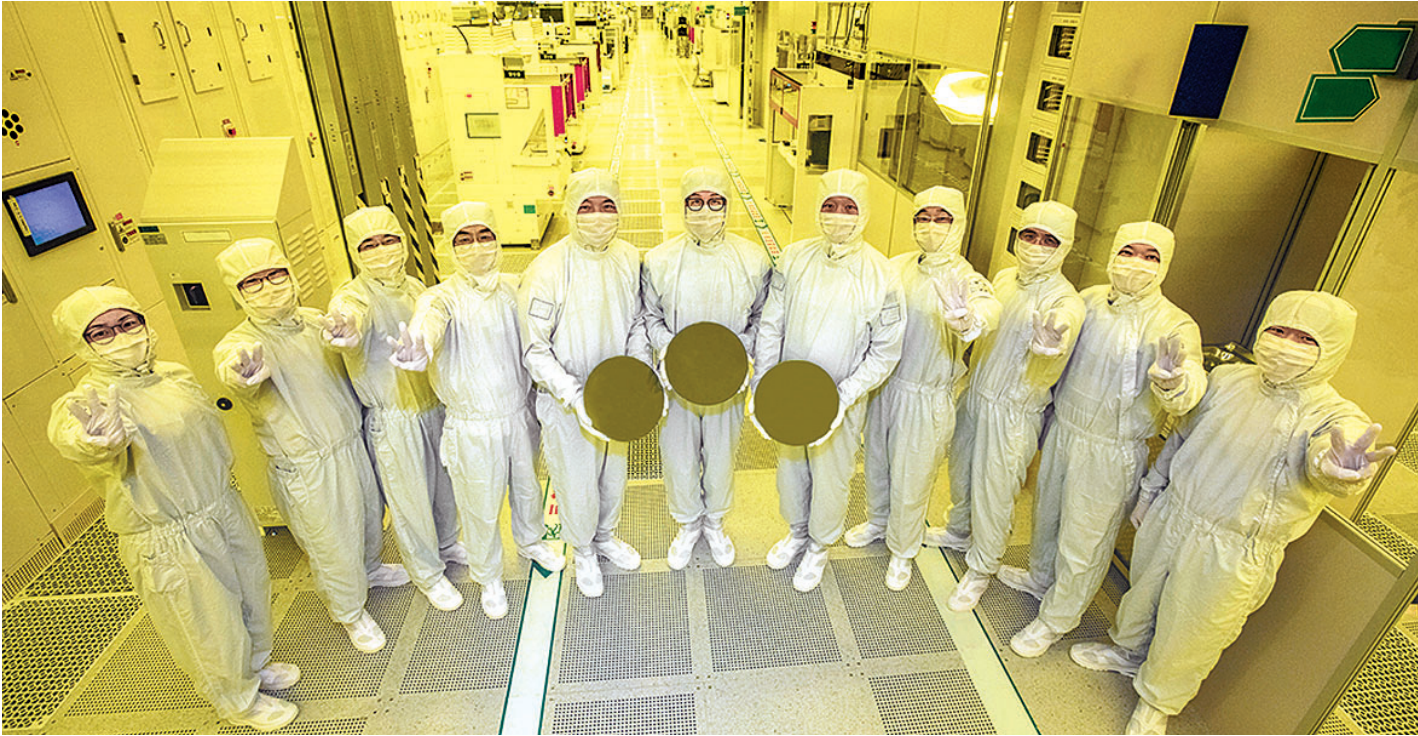
회로의 선폴이 줄어들수록 성능은 높아지고, 전력소비는 줄어든다. 웨이퍼(반도체 원판)에서 나오는 반도체 수도 늘어난다. 지난 5월 평택 공장을 방문한 한미 정상이 방명록 대신 서명한 것도 3나노 공정 웨이퍼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기술'을 강조한 뒤 선보이는 첫 번째 성과물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쟁사인 대만의 TSMC를 추격할 기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GAA 신기술로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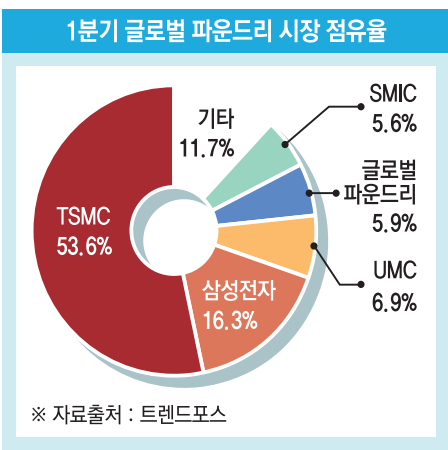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 6월30일 밝혔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신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서비스는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중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HPC)용 시스템 반도체를 초도 생산한 데 이어, 모바일 SoC(시스템온칩)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면을 게이트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임직원들이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둘러싸는 형태인 차세대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채널의 3개면을 감싸는 기존 핀펫 구조와 비교해 게이트의 면적이 넓어지며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따르면 3나노 GAA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은 45% 절감, 성능은 23% 향상, 면적은

16% 축소됐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계에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고, GAA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 또한 세계 최초로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공정 성숙도를 빠르게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 주도”

삼성전자는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PPA(소비전력·성능·면적), 극대화된 전성비(단위 전력당 성능)를 제공해 차세대 파운드리 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한발 앞선 기술로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를 추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선 TSMC가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2위를 차지

하고 있다. 더욱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중국 기업 등의 추격도 거세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16.3%로, 전분기(18.3%)보다 2%p 줄었다. 1위인 TSMC와의 격차도 전분기 33.8%p에서 1분기 37.3%p로 더 벌어졌다. TSMC의 1분기 점유율은 53.6%로, 전분기(52.1%)보다 1.5%p 늘었다. 중국의 SMIC, 화홍그룹, 넥스칩 등 3개 업체 합산 점유율도 처음 10%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차세대 공정 도입으로 치열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TSMC는 올 하반기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다. GAA의 경우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의 기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안정적 수율 확보와 함께 고객 요구 최적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y@donga.com

포스코케미칼, 英 브리티시볼트와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 맞손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위한 공급망 함께 추진
고성능 제품으로 전기차 시장 선점

포스코케미칼이 영국 배터리 기업 브리티시볼트와 배터리소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30일 영국 서식스주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 브리티시볼트 오랄 나자리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브리티시볼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왼쪽)과 브리티시볼트 오랄 나자리 최고경영자가 배터리소재 개발 및 공급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스코케미칼

트의 배터리에 활용될 전기차용 배터리소재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향후 대규모 공급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소재의 유럽 현지 생산을 비롯해 원료와 소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공급망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협약으로 유럽 시장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10월에도 노르웨이 모로우배터리와 '양·음극재 소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파트너사와의 사업 협력과 밸류체인 진입을 통해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 유일의 배터리 기업인 브리티시볼트는 영국 노섬벌랜드와 캐나다 퀘벡

등에 총 100GWh에 달하는 배터리 양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브리티시볼트는 영국의 자동차사 애스턴마틴, 로터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은 “친환경 배터리 기업인 브리티시볼트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유한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은 양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고성능 제품 개발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매 홀수월 1일마다 확인하세요”...현대차,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 도입

각 부문마다 달랐던 공고 일자 통일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로 소통 강화

현대자동차가 신입 상시채용 제도에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일 새로운 공고 게시 방식을 도입한다. 현대차는 7월 신입사원 채용부터 매 홀수월의 1일마다 각 부문별 채용 공고를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talent.hyundai.com)에 일괄적으로 게시한다. 이전에는 각 현업부문마다 채용 공고 게시 시점이 달라 지원자가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일괄 게시 방식은 지원자가 매 홀수월 1일에만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채용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지원 준비가 용이해진다.

또한 현대차는 공고를 게시하는 시기에 맞춰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번 신입 채용부터 최초로 AI 면접을 적용한다.

현대차는 스타트업 기업인 ‘제네시스 랩’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AI를 면접에 적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I 면접은 AI가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면 응답 과정에서 지원자의 표정, 행동, 음성 등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 채용 절차에서 더 지원자 관점을 고려하고 지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현대자동차가 신입 상시채용 제도에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일 새로운 공고 게시 방식을 도입한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